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연정*, 노병수**

A Stud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on the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Kim Yeon Jeong*, Noh Byung Soo**

요 약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나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과 동반해 최근에 1인창조기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창업 실패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을 무작정 하는 것 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창업의 성공을 위해 창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셀프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셀프리더십을 매개 변수로 기업가정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로 창업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나 실행능력교육과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측면 행동중심적, 자연적 보상, 건설적 셀프리더십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창업에 영향을 주는 기업가정신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창업교육, 셀프리더십, 기업가정신

Abstract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contributes to creation of new business or national economy. The increasing of job-loss recovery, youth unemployment and 1 person creative company entrepreneurship follows the increasing to Entrepreneurship failure. We identify entrepreneurship education factors which motivate individuals'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Research results suggests that understanding level and creativity leve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ward self-leadership. And reward self-leadership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entrepreneurship.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ducation, self-leadership, entrepreneurship

1. 서론

최근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과 정부 정책측면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로 인식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업교육은 미래에 기업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태도 등을 가르쳐주는 교육으로 인식된다.

국내 창업현황을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9년 10월 기준 약 20만개로 경제활동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다. 20만개의 1인 창조기업 중 20, 30대 청년층이 30.2%,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가 57.4%를 차지하고 있어, 1인 창조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IT비즈니스 환경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2].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회심리변인인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 본 논문은 주저자의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요약을 정리한 것임

*호서대학교 창업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사 주저자

논문접수: 2012년 6월 22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7월 16일

착안하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의 하위속성들도 기업가정신과 병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유추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에 대한 중요도 인지수준과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모색을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중요도 인지수준별 셀프리더십 및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Timmons[19]가 주장한 창업의 3가지 동력 중 한 요소인 기업가적 자질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혁신적인 창업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한 잠재적 창업가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의 방향성과 창업가로서의 성공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업가 자질 측정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의 필요성 및 구성요소

창업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Ronstadt[16]의 New School 이론, McMullan과 Long[11]의 전략적 독창성 모형, Shapero와 Sokol[18]의 기업가적 사건 개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창업의 개념을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구성도 다르게 보이고 있다.

창업교육의 구성면에서 창업교육의 이해도는 창업의 전체적인 틀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 기본 개념의 이해, 과학 및 기술과의 연계성의 이해를 포함한다. 창업교육의 창의성 요소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Torrance[20]는 창의성을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세워 검증하며,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창의성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지속적인 연구, 혁신의 의지등과 같이 창업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창의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알맞은 학습조건과 다양한 경험제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학생들에게 경영의 목적, 경제의 상호관계 등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창업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

하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받지 않은 학생보다 창의성 발휘가 뛰어날 것이며 기업가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2 셀프리더십의 정의 및 구성요소

셀프리더십 개념의 주창자인 Manz[12]는 셀프리더십 개념을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며 자기 효능감을 위한 기술이고, 행동 통제의 기초이며, 자아완성의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Manz와 Sims[14]는 셀프리더십이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해 옮기기 위한 내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 및 자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영향력으로 정의하여, 셀프리더십을 개인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과 생각의 통제라고 정의하였다[14].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이 개인에 따라 그 잠재력의 차이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구성항목에 따라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수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2.3 기업가정신의 정의 및 구성요소

기업의 성공은 기업가의 희망과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기업가정신에 의해서 실현된다.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Schumpeter[17]를 들 수 있다. Covin과 Slevin[6]은 기업 행동으로서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최고경영자적인 태도와 환경, 전략, 조직 내적 변수와의 관계 및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종관[1]은 “경영조직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그 영향 요인 및 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이 조직의 성과에 대한 매개변수로써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Covin과 Slevin[6]은 진취적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공격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였고, Lumpkin과 Dess[10]는 진취성을 시장기회를 추구하고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사에 대해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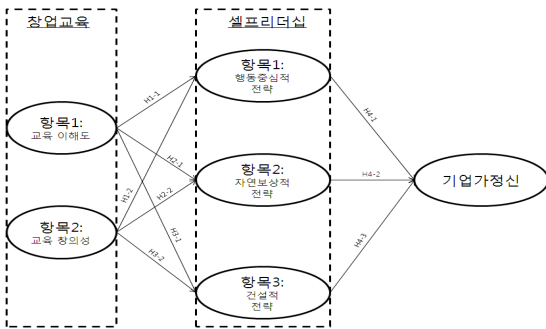
이상으로 창업교육과 셀프리더십,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창업교육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인지 수준과 셀프리더십 및 기업가정신 수준간의 구조적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창업교육에 대한 인지수준에 따른 인과관계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통해 전반적으로 인지하게 된 창업교육의 이해도와 창의성 수준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에 의하여 검증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의 이해도와 창의성 수준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 수준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업교육에 대한 인지수준이 셀프리더십의 행동전략 중 Houghton과 Neck[8]이 제시한 행동중심적전략, 자연보상적전략, 건설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2.1 창업교육과 셀프리더십의 관계

창업교육 및 대상자들의 인지수준과 셀프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창업은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의 전문 교육을 받은 혁신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성취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창업교육에 이해도가 높고 창의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조절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H1. 창업교육은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창업교육 이해도는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창업교육 창의성은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창업교육은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창업교육 이해도는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교육 창의성은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창업교육은 건설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창업교육 이해도는 건설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창업교육 창의성은 건설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의 관계

셀프리더십의 선행연구에서 여러 연구자[8][12][13][14]에 의하면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행동을 하며 결과적으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급변하는 환경이나 조직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의 환경이나 조직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진취적인 반응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 역시 환경변화에 대한 자기조절 및 자기관리의 의지수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과의 관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Covic과 Slevin[6]은 이론적 연구 모형의 제시를 통해서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하여, 셀프리더십이 갖는 자연보상과 건설적 전략과의 연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H4. 셀프리더십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건설적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은 H대학교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68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남자가 48.5% 여자가 51.5%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모두 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사용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어지는 응답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상관관계분석과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으로 구조모형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가

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확인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선정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서 제기한 연구 모형에 의해 창업교육의 이해도와 창의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독립변수로,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수로 채택하였고 기업가정신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창업교육과 셀프리더십, 기업가정신의 측정을 위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창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창의성 변수는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주간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창업교육 내용의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7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조사척도로는 ITEA[9], 서해에 외 4인[3]이 연구한 발명교육 표준내용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표 1>

셀프리더십 변인은 Houghton과 Neck[8]이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셀프리더십 척도를 기반 하여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여 수정한 신용국[4]의 셀프리더십 척도로 총 12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 척도는 Schumpeter[17]의 혁신성, Covin과 Slevin[6]의 진취성 개념에 따른 문항을 재구성하여 8개 문항에 대한 중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신뢰도

변수명		설문문항	문항수	신뢰도
창업교육	이해도	창업에 적용된 기본개념의 이해/창업특성과 창업법위의 이해 분야별 창업특성의 이해/창업의 사회적 필요성의 이해	3	0.633
	창의성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의 발달/창업수행에 있어서 창의성의 중요성인지/실질 창업에서의 창의적인 사고력 요구도	3	0.610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 전략	공부나 과제에 대한 구체적 목표설정/목표인식 후 과제 수행 스스로 세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수반/성과달성위한 구체적 목표의 세분화 및 작성	4	0.791
	자연적 보상전략	나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환경조성의 노력 과제마무리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수행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탐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임	3	0.672
	건설적 전략	중요한 일에 대한 성공적 수행에 대한 이미지화 과제수행 전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나 자신의 상상 실질적인 수행하기 전 성공적 방안을 이미지화함 어려운 문제발생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미지화함 어려운 도전 직면시 성공적인 극복을 위한 이미지화	5	0.893
기업가정신		타인과의 경쟁을 좋아함/조심하지만 경쟁과 허세에 대한 인정/위협추구/업무처리의 세밀함/업무에 대한 경쟁의식/전통이나 구습의 불필요성 인지/결심 후 일에 대한 추진정도/칭찬이나 보상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호	8	0.893

요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창업교육 항목, 셀프리더십 항목, 기업가정신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4. 연구결과

4.1 자료분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값 계수를 이용하였다. 측정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회전방식은 직각행렬방식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과 가설적모형의 적합도 지수 측정, 가설적모형의 각 예측변수의 효과계수를 측정하여 가설검증에 활용하였다.

4.2 실증분석

4.2.1 신뢰도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가설검증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1>의 측정요인들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수용할 만하다는 Nunnally[15]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결과는 창업교육의 이해도(0.633), 창의성(0.610),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0.791), 자연보상적 전략(0.672), 건설적전략(0.893), 기업가정신(0.893)으로 나타나 Nunnally(1978)의 연구결과를 모두 만족시켜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1>의 변수항목과 동일하게 분석되어 제시하지 않았다.

4.2.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적재치에 문제가 있는 항목을 제거한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모형의 유의성을 평가하여 문항들의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였다.

<표 2>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연구변수 및 측정항목		표준화 추정치	t-value	CR	AVE	
창업교육	이해도	1-1	.721	8.244	0.76	0.62
		1-2	.745	-		
		1-3	.715	7.862		
	창의성	2-1	.679	9.235	0.73	0.71
		2-2	.688	8.599		
		2-3	.752	-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 리더십	3-1	.882	.193	0.79	0.69
		3-2	.745	.016		
		3-3	.811	.018		
		3-4	.792	-.054		
	자연보상적 리더십	4-1	.899	.076	0.82	0.65
		4-2	.842	.061		
	건설적 리더십	5-1	.755	.099	0.81	0.60
		5-2	.812	-.009		
		5-3	.834	.012		
		5-4	.790	.052		
	기업가정신	6-1	.782	-.029	0.89	0.71
		6-2	.812	-.079		
6-3		.811	-.005			
6-4		.799	-.081			
6-5		.808	-.155			
6-6		.788	.192			
6-7		.798	-.025			
6-8		.808	.227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 할 수 없는 연구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 검증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창업교육의 이해도와 창의성으로 제시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자연보상적, 건설적전략으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기업가정신을 제시하였다.

〈표 3〉 가설적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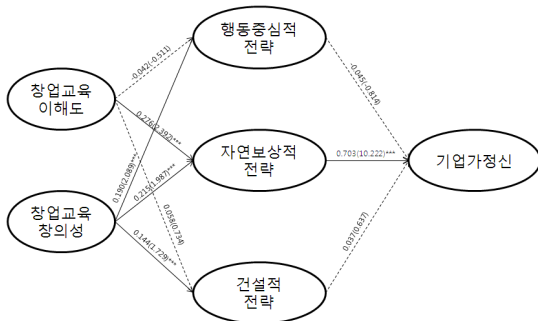
부합지수	CMIN/DF	GFI	CFI	TLI	IFI	RMSEA
가설적 모형	2.129	.861	.894	.879	.895	.065

〈표 3〉의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GFI, CFI, TLI, IFI는 0.9이상이면 모형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본 모형은 0.9에 가까워 양호하게 측정되며, RMSEA는 .08 이하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되는데 .065로 나타남에 따라 본 측정 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항목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항목의 표준추정치 및 복합신뢰도(CR)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분석하였다. 측정항목의 표준화추정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복합신뢰도는 창업교육이해도(0.76) 창의성(0.72) 행동적리더십(0.79), 자연보상리더십(0.82) 건설적리더십(0.81), 기업가정신(0.76)으로 나타나 모든 AVE 값이 권고치인 0.5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문항은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5]〈표 2〉 참조. 다음으로 요인들간의 판별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값의 제곱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AVE 값이 모두 상관계수 값의 제곱보다 높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7]〈표 4 참조〉.

4.2.3 연구모형 적합도 및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검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P<0.1 *P<0.5 **P<0.01 ***P<0.001

〈그림 2〉 연구결과

검증결과 창업교육 이해도(0.276, p<.001)는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행동중심적 전략(-.042 p>.05), 건설적전략(0.058,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1-1,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이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창업교육 이해도에 높은 인지수준을 보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과제를 수행할 때 긍정적인 면을 보는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에 영향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해도 즐겁지 않은 일이나 어려운 일, 도전적으로 해야 할 일등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창업교육의 창의성 변수들은 자연보상적 전략(0.215 p<.001), 행동중심적전략(0.190 p<.001), 건설적전략(0.144, p<.001)의 순서로 3가지 셀프리더십 전략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창업교육을 이수한 대학생들이 창업교육의 창의적 내용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일상을 계획하고 실행의지가 있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셀프리더십 항목 중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자연보상적 리더십만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보상적전략(0.703, p<.001)만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보여 가설 4-2만 지지되었고, 행동중심적전략(-.045, p>.05), 건설적 전략(.037, p>.05)은 유의하지 않아 가설 4-1,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셀프리더십 항목 중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자연 보상적 리더십만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연보상적전략(0.703, p<.001)만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보여 가설 4-2만 지지되었고, 행동중심적전략(-.045, p>.05), 건설적 전략(.037, p>.05)은 유의하지 않아 가설 4-1,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이는 행동 중심적 리더십과 건설적 리더십이 기업가정신에는 중요한 요소지만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하거나 건설적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창업의 성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에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매개변수인 자연보상적 리더십은 종속변수인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매개변수인 자연보상적 셀프리더십은 창업교육의 이해도와 창의성에 대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의 교육성과를

〈표 4〉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창업교육 이해도	창업교육 창의성	행동 중심적 리더십	자연 보상적 리더십	건설적 리더십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이해도	3.45	0.723	(0.78)					
창업교육창의성	3.23	0.677	.303**	(0.84)				
행동중심적 리더십	3.36	0.772	.013	.099	(0.83)			
자연보상적리더십	3.06	0.781	.210**	.186**	-.070	(0.86)		
건설적리더십	3.26	0.703	.055	.068	.180**	.233**	(0.77)	
기업가정신	3.54	0.811	.039	.022	.062	.185**	.642**	(0.84)

높고 창업교육의 내용을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창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번호	가설내용	채택, 기각
H1-1	창업교육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행동중심적 전략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2	창업교육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행동중심적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2-1	창업교육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자연보상적 전략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2-2	창업교육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자연보상적 전략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3-1	창업교육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건설적 전략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2	창업교육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건설적 전략 셀프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4-1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4-2	셀프리더십의 자연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H4-3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 결론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창업교육 이해도 및 창의성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창업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배운 학생들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을 강화하려면 어떠한 창업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과 연계되어 창업의 성공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을 이해하고 창업교육의 창의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과 흥미로운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는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자연보상적 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자신이 계획한 일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경우 창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에게 어려운 일이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나쁜 습관, 자신에게 비합리적인 신념과 생각들이 많은 경우는 창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상상하거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관리가 잘 된 경우는 창업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즉 창업이라는 것은 특성상 어렵고 사회적 변화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고 아이디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패확률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은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일상생활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기 노력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나 실행능력교육과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측면, 행동중심적, 자연적 보상, 건설적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가정신의 보강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창업을 평가할 때 성공적 성과 뿐만 아니라 목표설정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활동의 구체성 평가 및 교육, 지속적인 실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이 창업교육의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면 잠재적인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고 창업기업의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처럼 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더욱 높은 기여를 할 것이다. 창업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따른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후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설문뿐만 아니라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요인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한 측정을 수행한다면 응답에 대한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이 한 학교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부족과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의 성과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관적 설문으로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주관적 설문은 개인이 인식하는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변수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공적 케이스를 설문에 포함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받은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 및 주관적 성과와 성공적 사례를 함께 포함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의 특성과 효과성, 그리고 이들의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성공이나 실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종관 (1994). 경영조직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그 영향요인 및 성과와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2] 송주빈(2010). 1인 창조기업 육성법. 환경비즈니스.
- [3] 서해애 · 조석희 · 김홍원 · 정현철 · 손연아(2002). 발명교육 내용표준 개발, 특허청 연구보고서.
- [4] 신용국 (2009). 셀프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 [5] Anderson, J., & Gerbing, D.(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6] Covin, G.. & Slevin, D. P. (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7]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 Research*, 18, 39-50.
- [8]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9] International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2002), *Standards for Technological Literacy: Contents for the study of Technology*.
- [10] Lumpkin, G. T., & Dess,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11] McMullan, W. E. & Long, W. A. (1990). Issu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Developing New Ventures*, New York,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485-495.
- [12]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13] Manz, C. C., & Neck, C. P. (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3rd ed. Pearson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NJ.

[14] Manz, C. C., & Sims, H. P. Jr.(1989),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New York: McGraw-Hill.

[15]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 Hill.

[16]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s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7-23.

[17]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Brothers (5th). London.

[18] Shapero, A. & Sokol, L. (1982), The social dimension of entrepreneurship, in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dited by Calvin A. Kent, Donald L. Sexton, and Karl H. Vespe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 Timmons, J.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21st century, Irwin MacGraw-Hill, Fourth eds.

[20] Torrance, E. P.(1963), Adventuring in creativity. Childhood Education,McMillan.

김연정



- 1989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 학사)
- 1991 이화여자대학교(가정학 석사)
- 1998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 전공(문학박사)
- 2005~현재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소비자경영정보, 창업, 문화콘텐츠 R&D

· E-Mail: yjkim@hoseo.edu

노병수



- 2009 호서대학교 (벤처비즈니스학 학사)
- 2012 호서대학교 대학원 (디지털기술경영학 석사)
- 관심분야: 창업, 문화콘텐츠 R&D
- E-Mail: nbs1227@naver.com